

다니엘서 - 144번

미국 민주당 몰락의 예언적 의미

Jeff Pippenger

2024-03-18

미국 민주당의 붕괴는 성경 예언의 특정한 주제다. 이는 미국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과 관련된 예언적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을 짐승의 형상의 머리로 세우는 예언적 역학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있는 짐승의 형상은 이중적이면서도 삼중적이다. 그것이 이중적인 것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나타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삼중적인 것은 그것이 열 왕(정치권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열 왕이 우두머리 왕(교권)에 의해 지휘되기 때문이다. 그 짐승은 한 머리에 의해 타여지고 다스림을 받는다. 곧 그 머리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다.

미국에서의 짐승의 형상은 이중적이면서도 삼중적이다.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중적이지만, 배교한 개신교의 뿔(교회 운영)이 지휘하는 배교한 공화주의의 뿔(국정 운영)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중적이기도 하다. 그 짐승 위에 올라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한 머리인데, 그 머리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이다.

어느 경우든 그 머리는 완전한 독재자다. 그의 독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맥락은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때의 역사적 흐름이다. 왜냐하면 '말하기'가 땅의 짐승의 주된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1776년, 1789년, 1798년, 1863년, 2001년, 2021년에 말했으며,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 그 형상이 완전히 형성될 때 다시 말할 것이다.

바울의 시대에 불법의 비밀, 곧 교황권은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교 로마라는 용에 의해 억제되고 있었다. 1798년과 1799년에 그 용은 불법의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지만, 1989년에 로마의 교황은 소련이라는 용을 물리쳤다. 끝까지 이르는 모든 예언적 역사는 교황권이 용과 전쟁 중에 있음을 묘사한다. 마지막 날들에 로마의 교황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라는 사악한 연맹의 머리로 높여질 독재자이다. 화이트 자매는 "하나의 머리 아래, 곧 교황권"이라고 말했으며, 시편 기자도 또한 열 왕이 여덟째 머리, 곧 일곱에 속한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하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교한 꾀로 모의하며 주의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서로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끊어 없애지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하였나이다. 시편 83:2-4.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것은 본질상 삼중적이며 또한 이중적일 것이다. 그것은 교권과 정치권력의 이중적 결합이 될 것이나, 그 정치 체제는 하나의 수장에 의해 통치될 것이다. 여덟째 대통령이 짐승의 우상을 다스리고 그 위에 올라탈 것이다. 앞선 일곱 대통령 가운데 하나였던 여덟째 대통령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그는 "여섯째" 대통령일 때 치명상을 입었다.

예언된 '불법의 사람'은 그 전 역사 내내 용과 전쟁을 벌여 왔다.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주의의 용을 뒤흔든 부유한 왕이며, 2015년 6월 16일 뉴욕시 트럼프 타워에서 대통령 출마 의사를 처음 밝힌 이후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전쟁에서 용의 세력과 싸워 오고 있다. 그곳은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바로 그 도시이자, 쌍둥이 빌딩을 대신한 프리덤 타워가 2014년 11월 3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도시이기도 하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그리스도와 14만 4천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로마의 음녀와 땅의 왕들 사이의 음행은 거짓 혼인으로 완성된다. 그 일요일 법령 때에 에덴동산의 쌍둥이가 둘 다 높여지고, 동시에 모조품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그 쌍둥이 제도는 결혼과 제칠일 안식일이다.

“그 후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정당성에 관하여 그분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창조 때 제정된 혼인 제도로 청중의 시선을 돌리셨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아내들을 버리게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9:8.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히 좋다'라고 선언하셨던 에덴의 복된 날들을 가리키셨다. 그때 혼인과 안식일이 제정되었는데,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쌍을 이룬 제도였다. 또한 창조주께서 거룩한 한 쌍의 손을 혼인으로 결합시키시며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창세기 2:24)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상의 끝날까지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혼인의 법을 선포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과 발전을 가져오는 법이었다.” 산상보훈, 63.

일요일 법령에서 배도한 개신교, 심령주의, 가톨릭이 손을 맞잡는 그 삼중 연합은, '창조주께서 거룩한 한 쌍의 손을 혼인으로 결합시키셨다'는 에덴의 결혼을 모조한 것이다. 일요일 법령에서 결혼과 안식일이라는 쌍둥이 제도가 높이 들어 올려지고 동시에 모독된다. 인침의 역사는 쌍둥이 타워가 무너졌을 때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결혼과 안식일이라는 쌍둥이 제도가 높이 들어 올려질 때 끝난다. 그 역사 한가운데 2014년에 프리덤 타워가 헌정되었고, 2015년에는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의 글로벌리즘을 자극하는 행보가 시작되었다.

쌍둥이 타워는 글로벌리스트들의 돈에 대한 사랑을 책망하기 위해 무너졌고, 프리덤 타워는 하늘의 하나님과 그가 홍수로 내린 심판에 맞선 니므롯의 반역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프리덤 타워는 2001년 9월 11일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는 상징이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이, 더 높이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궁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처럼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지자,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이웃의 시기를 불러일으킬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부심으로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투자한 돈의 많은 부분은 갈취, 곧 가난한 자들을 짓밟아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상의 거래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었다. 모든 불의한 거래,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결코 넘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한계점에 이르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증언, 제9권, 12.

니므롯의 탐으로 대표되는 반역은 하나님께서 최근에 내리신 대홍수의 심판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글로벌리스트 은행가들이 최근의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벌이는 반역을 상징했다. 글로벌리스트의 사전에 정의된 자유는 성경적 자유와는 전혀 상반된다. 용의 사전에 있는 자유는 방종이며, 프랑스 혁명의 부도덕성으로 상징된다.

거리에서 증인들이 살해되고 그들의 시체가 버려져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다.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애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대담하게 부인하고 그의 명령에 거역하였다. 하늘의 권위에 대해 애굽 왕만큼 노골적이고 오만무도한 반역을 감행한 군주는 없었다. 주의 이름으로 모세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바로는 교만하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또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2, A.R.V. 이는 무신론이며, 애굽이 상징하는 그 나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와 같이 부인하고, 동일한 불신과 반항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그 '큰 성'은 또한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소돔의 부패는 특히 음란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죄는 또한 이 성구의 요건을 성취할 그 나라의 대표적 특징이 될 것이었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1798년이 되기 조금 전에 사탄적 기원과 성격을 지닌 어떤 권세가 일어나 성경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두 증인의 증언이 침묵당하게 될 그 땅에서는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방탕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두드러지게 성취되었다. 혁명 기간이던 1793년에, '문명 속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들 가운데 하나를 다스릴 권리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한목소리로 인간의 영혼이 받아들이는 가장 엄숙한 진리를 부정하고, 신에 대한 신앙과 예배를 만장일치로 버린다'는 소리를 세계는 사상 처음으로 들었다.-Sir Walter Scott, Life of Napoleon, 제1권, 제17장. ...

프랑스는 또한 소돔을 특별히 특징짓던 특질들을 보여 주었다. 프랑스 혁명 동안에는 평원의 도시들에 멸망을 가져왔던 것과 유사한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상태가 드러났다. 그리고 역사가는 예언에 나타난 그대로 프랑스의 무신론과 방탕을 함께 제시한다: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약속이며 그 지속성이 사회의 통합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혼인의 결합을, 누구든 두 사람만 있으면 마음대로 맺고 기호에 따라 느슨하게

풀어 버릴 수 있는 일시적 성격의 단순한 민사 계약 상태로 격하시킨 것이었다.... 만일 약자들이 가정생활에서 존귀하고, 우아하고, 항구적인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식과, 동시에 그들이 일으키려는 해악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영속되도록 보장받는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나섰다 하더라도, 혼인을 격하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계획을 고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재치 있는 말로 유명했던 여배우 소피 아르누는 공화국식 결혼을 '간음의 성사'라고 묘사했다."-스콧, 1권, 17장. 대쟁투, 269, 270.

2014년에 준공된 뉴욕시의 프리덤 타워는 니므롯의 탑의 반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표상하는 방종한 LGBTQ+ 운동의 조장으로 드러나는, 세계주의자들이 정의하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다. 참된 자유는 그 탑이 표상하는 바와는 정반대이지만, 용의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만의 술수 가운데 하나는 그릇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단어와 어구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 용은 전형적인 변호사이며, 사악한 결과를 빚어내기 위하여 언어를 비틀어 사용하는 언어의 장인이다. 그러나 '자유'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안티파의 무정부상태가 표상하는 자유도 아니며,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는 방종도 아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거부하는 모든 영혼은 다른 권세의 지배 아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는 자유를 말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다. 그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자신이 자기 판단에 따른다고 스스로 자만하지만, 그는 어둠의 군주의 뜻에 복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죄의 종살이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한다.' 로마서 8:2.

구속의 사역에는 강제가 없다. 어떠한 외적 힘도 사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서, 인간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는 가장 숭고한 자유가 있다. 죄의 추방은 영혼 자체의 행위이다. 물론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없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큰 필요 가운데서 우리 자신 밖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능력을 부르짖어 구할 때, 영혼의 능력은 성령의 신적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지의 명령에 순종한다. 시대의 소망, 466.

프리덤 타워가 상징한 '자유'는 프랑스 혁명의 방종과 니므롯의 반역이었다. 바로 그 다음 해 트럼프 타워에서 1989년 이후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글로벌리스트들을 자극할 출마 선언을 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때 결혼을 '일시적 성격의 단순한 민사 계약'으로 바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용과 가장 부유한 대통령 사이의 전쟁이 개시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 쌍둥이 타워가 파괴된 사건은 인침의 때의 시작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슬람의 짐승의 출현을 표징하였다. 그 예언적 역사 한가운데서 거행된 프리덤 타워들의 봉헌식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신론의 짐승의 출현이 표징된다. 이제 에덴동산에서 제정된 안식일과 혼인이라는 쌍둥이 제도의 몰락은 인침의 때의 종결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세

번째 가톨릭의 짐승의 출현을 표징한다.

2020년 11월 3일, 트럼프는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었듯이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는 1798년에는 문자적 프랑스에 의해, 2020년에는 영적 프랑스에 의해 가해졌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또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일 것이니, 거기에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요한계시록 11장 7, 8절.

대쟁투에서 화잇 자매는 프랑스를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성'으로 지칭한다.

그런즉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1798년이 되기 조금 전에 성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사탄적 기원과 성격을 지닌 어떤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두 증인의 증거가 침묵당하게 될 그 땅에서는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방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쟁투, 270쪽.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 짐승의 형상이 완전히 형성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기치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들은 기치로서 제칠일 안식일을 굳게 수호하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신비로 규정되는 이 위대한 진리 안에서 혼인 제도가 높이 들어 올려진다. 그 기치는 안식일과 그 쌍둥이 제도인 혼인 제도를 표상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고,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물의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며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주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 같이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그의 뼈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에베소서 5:23-32.

그 기호는 안식일과 혼인이라는 두 제도의 상징이며, 혼인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표상한다. 그 혼인의 신비는 그의 교회를 표상하니, 그 교회는 그의 성전이다.

"그 탑은 성전의 상징이었다." 시대의 소망, 596.

인침의 때의 시작에는 쌍둥이 탑이 무너졌고, 인침의 때의 중간에는 두 계급을 분리하는 과정(두 뿔 모두에 대하여)을 대표하는 두 "탑"이 확인되었으며, 인침의 때의 끝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일이라는 쌍둥이 탑이 이방인들에게 기치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날이 교만하고 자고한 모든 자와 스스로 높아진 모든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높고 우뚝한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위에, 또 모든 높은 산들과 높이 솟은 모든 언덕들 위에, 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위에, 또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 사람의 거만함은 굽혀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낮아지리니 그 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상들은 그가 온전히 없애시리라. 그가 일어나 땅을 심히 흔드실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위엄의 영광 때문에 그들은 바위의 구멍들과 땅의 굴들로 들어가리라. 그 날에 사람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버리고, 그가 일어나 땅을 심히 흔드실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위엄의 영광 때문에 험한 바위 틈으로 들어가리라. 코에 숨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라. 그는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사야 2:12-22.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내가 신뢰하는 이시며,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다. 시편 144:2.